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0, Vol. 39, No. 3, 385-420

<http://dx.doi.org/10.22257/kjp.2020.9.39.3.385>

성소수자 혐오폭력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질적 분석: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최 현 정[†]

본 연구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의 성소수자 17명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 이론을 기반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혐오폭력의 양상, 이것이 성소수자에게 가하는 억압의 양상, 그리고 혐오폭력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59개 하위주제, 15개 상위주제, 그리고 3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범주는 존재의 말살, 정처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 인정투쟁: 연대 속에서 존엄성 실현 확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안에서 호네프의 이론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성소수자는 혐오폭력에서 존재 말살이라는 심리사회적 죽음과 존엄의 훼손을 겪지만, 가로막힘과 은폐, 소외 속에서 인정투쟁의 동기를 얻어 자신을 드러내고 다양성 구현을 위한 상호인정의 연대에 동참하며, 사회는 이러한 연대 속에서 도덕적으로 진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폭력을 제정의 하였고 나아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 인정으로 인간 존엄성 실현에 기여하는 상호인정의 실천과 심리학자의 역량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성소수자, 혐오폭력, 인정투쟁, 포커스 그룹, 질적 분석

* 본 연구는 (사)비온뒤무지개재단 열린사회기금과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의 기금으로 진행하였음.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hchoi@g.cbnu.ac.kr

혐오 기반 폭력(hate based violence, 이하 혐오폭력)이란 사회문화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표적으로 행해지는 광범위한 폭력을 일컫는다. 이는 개인 내면에 지닌 편견(prejudice)을 포함하여, 이러한 편견을 걸음으로 드러내는 혐오표현(hate speech), 또한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차별(discrimination), 그리고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동기로 하여 소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위에 심각한 침해와 위반을 가하는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집단학살(genocide)을 아우른다(Brax & Munthe, 2015; Levine, 2009).

혐오폭력 피해자는 기회의 차이, 비하 및 수모, 공격 모욕, 차별, 괴롭힘, 희롱, 기물 파괴, 협박, 신체폭력, 죽음 위협, 살인 미수, 신체 손상, 성폭력 및 학대, 그리고 살인으로 인한 죽음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인종, 민족,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국적, 장애 혹은 그 밖의 성향을 빌미로 하여 가해진다(Ghafoori et al., 2019).

따라서 혐오폭력은 정체성 트라우마(identity trauma; Kira, 2001)의 속성을 띤다. 정체성 트라우마를 겪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이 표적이 되어 만성적인 사회적 차별, 폭력,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이러한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를 포함하고 인과가 뚜렷하지 못한 채 지속적이고 만연한 영향을 미친다(Kira, 2001). 사회문화적 소수자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 만성 폭력이라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낙인으로 삶이 왜곡 당하는 경험을 겪으며 신체 및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Meyer, 2003).

혐오폭력 발생에는 성소수자(LGBTAI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 and Questioning, 이하 퀴어, 성소수자, 혹은 첫

알파벳 제시 등으로 병용함)를 향한 폭력이 포함된다. 미국 전역 실태조사에서 13-20세 LGBT 85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적 지향이나 성별 표현을 표적 삼은 것으로 지각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였는데, 언어폭력이 92.3%, 신체폭력이 44.7%, 사회 및 관계 폭력이 89.5%, 물품 훼손이 47.7%였다(Kosciw et al., 2012). 혐오폭력에 대해서 국제 트라우마 학계는 이를 상당히 위중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Ghafoori et al., 2019).

한국사회는 혐오폭력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심각하게 지체된 실정이다. UN 자유권위원회(UNHRC, 2015)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 권고문에서 LGBTI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폭력이 만연함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은 권고 사항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였다는 최하 등급(E)을 평가받았다(UNHRC, 2018).

그 중 혐오표현에 관한 최근 국내 실태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 중 혐오표현을 접한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49.3%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배제, 두려움, 슬픔, 긴장 및 무력감, 자존감 손상, 자살 충동, 우울, 공황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7).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적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로 혐오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 논란과 더불어 그 위해가 희석되면서 사회적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Hong, 2018).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혐오폭력의제에 관한 국내 심리학계 문제의식 공유와 논의가 시급하다.

국내의 연구를 포함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폭력은 자살, 사회불안, 우울, 담배 및 알코올 사용, 학교 적응 및 행동 문제, 또한 동성 파트너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증가와 관련을 보였다(Gillum & DiFulvio, 2012; Kang & Ha, 2005; Kim & Kim, 2018; Logie et al., 2012; Mustanski et al., 2014; Pachankis et al., 2013). LGB 혐오범죄 생존자들은 혐오범죄가 아닌 범죄 피해를 입은 LGB 생존자들에 비해 우울, 불안,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Herek et al., 1999). 또한 성별(gender) 기반 피해, 즉,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에 대한 공격과 무시를 경험한 경우, 자살 시도 횟수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Goldblum et al., 2012). 주목할 만한 연구로, LGBT에 대한 혐오범죄가 더 빈번한 이웃사회는 빈도가 낮은 곳에 비교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성소수자의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Duncan & Hatzenbuehler, 2014). 즉,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은 이들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는 혐오폭력의 만연한 부정적 결과로 인해 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으나 서비스 안에서 커밍아웃하기 두려워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미세 공격(micro-aggression)이나 차별 행동에 노출되는 등 혐오폭력을 오히려 반복하여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9; Spengler et al., 2016).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 넘어 다양한 심리학 전문 분야에서 성소수자의 혐오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자의 역할과 연관 지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질적 연구에서 이론 기반은 자료에 대한 초점을 조정하고 분석 틀을 제공하므로 중요하다(Reeves et al., 2008). 사실상 분석과 해석이란 이론과 가치의 문제이므로, 편향을 지양하고 방법의 엄격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반 가정을 명료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Burns, 1989). 본 연구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 관점에서 사회철학자 A. Honneth(1992/2011)의 인정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성소수자가 참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혐오폭력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혐오 대상이 되는 체험, 그리고 이 체험이 저항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심리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혐오폭력에 대응하는 심리학자의 역할 역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비판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 지식과 권력 관계가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연구하여, 부정의를 직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며, 더불어 사회변화 그리고 억압된 자들의 역량강화를 지향한다(Kincheloe & McLaren, 2000; Reeves et al., 2008). 비판이론은 특정한 분석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며 미시에서 거시 수준을 아우르는 분석을 수행한다(Reeves et al., 2008).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사회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자신을 바라봄(Kang & Ha, 2012)'의 과정을 거친다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결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은 정치사회적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Park, 2018),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절의 결과이며 개인 병리가 아니라 차별과 낙인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DiFulvio, 2011), 혐오폭력은 이를 직접 경험한 성소수자 개인뿐만 아니라 성소

수자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끼친다(Bell & Perry, 2015).

Honneth(1992/2011)는 '좋은 삶'을 위한 형식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인정의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투쟁을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이라고 하였다. 인정은 인간이 자기 삶을 실현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지닐 수 있게 하여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사회적 조건이다. 헤겔 철학 및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에 토대를 두는 Honneth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자유의지의 실현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대상관계이론과 G. H. Mead의 사회심리학 이론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도입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 개인은 사랑을 통해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견지하고, Mead 이론에서 주격 나(I)는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이 내면화된 목적격 나(me)에 대한 심상을 갖추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획득한다(Honneth, 1992/2011). 즉,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의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부당한 무시(Missachtung)를 겪은 자들은 자기 획득과 자리매김을 박탈당하는 부정의(不正義)의 고통을 겪는다(Honneth, 1992/2011). Honneth는 세 가지 무시의 형태로, 첫째, 욕구와 정서본능을 무시하는 신체적 불가침성의 무시와 그 결과로서 심리적 죽음, 둘째,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과 구성원으로서의 동등성을 무시하는 권리박탈 및 굴욕과 그 결과로서 사회적 죽음, 셋째, 개인의 생활방식과 신념방식을 열등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 즉, 모욕을 들었다.

한편, Mead에 따르면 'I'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한 'me'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개성을 인정

받으려는 지속적인 투쟁의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Mead에게 인정투쟁의 종착지는 분업화된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에 편입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풍부해진다(Honneth, 1992/2011, p.172). 그러나 Honneth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가 여부는 한 사회가 지닌 공통의 관념에 좌우되며 따라서 개인은 사회가 규정하는 능력으로 가치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즉, Mead의 인정투쟁에서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권리는 존중되지만 그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는가는 논의되지 않는다. Honneth는 다양한 자기실현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를 관통하여 기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지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Honneth(1992/2011)는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다른 이와 구별되는 고유하고 대등한 개인으로 인지되는 인정투쟁을 이야기했고, 이 인정투쟁을 통한 자기 가치 실현은 '연대'라는 상호인정의 최고 형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Honneth(2001/2017)는 자유 이념의 과잉 속에서 주관적인 자기실현의 편협함에 빠진 공허함이라는 사회병리를 지적했음을 언급하였다. 인간은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임(Im-Anderen-bei-sichselbst-Sein)'을 견지할 때, 관계 안에서 규정되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나아가 참된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다(Honneth, 2001/2017). 따라서 이 인정투쟁은 무시와 모욕이라는 도덕적 훼손에 저항하려는 투쟁으로서 도덕적 정당성이 있으며, 상호인정을 토대로 한 연대로써 이루는 자기 가치 실현은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으로 연결되는 사회 발전의 경로를 남긴다(Honneth, 1992/2011).

본 연구가 사회심리학자 Mead의 이론 혹은 개인의 심리적 탄생을 주목하는 대상관계 심리학이 아닌 Honneth의 사회철학 이론을 선택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성소수자 개인 내면의 주관적 심리 현상을 넘어, 혐오폭력에 관여하는 가치규범과 성소수자의 인정투쟁에 놓인 보편적 가치지평 획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가능하다.

Lee(2015)는 Honneth 이론으로 인권도시운동에 관한 사회철학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소수자가 도시공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현상을 사법적 동등성 요구의 권리투쟁을 넘어선 연대투쟁으로 읽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me'에 대한 'I'의 갈등으로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만이 실현되므로 성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성소수자의 드러냄은 단지 자기 집단의 권리 획득을 넘어선 행위인데, 드러냄의 목적인 상호인정을 통해 성소수자가 편협을 겪지 않고 자기 고유성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가치규범이 확장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상을 생생한 경험 자료에서 포착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성소수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 방법으로서(Morgan, 1988), 포커스 그룹 자료는 참여자 사이의 의사소통, 즉, 상호작용 자체가 바탕이 되어, 개인 인터뷰에서 구하기 어려운 집단 과정 속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바, 문화변인에 민감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Kitzinger, 1995). 포커스 그룹을 통한 자료 수집은 '여러 목소리(multivocality)'가 들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구조화된 진행으로 중재자(연구자)의 통제를 제한함을 통해, 일상에 자리한 억압의 층위와 저항의 형태에 관한 집단의 증언과 더불어 저항의 내러티브를 드러낸다(Madriz, 2000). 이는 사회 구조적 부조리를 드러내는 비판이론의 학문 지향과도 일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는 집단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찾아나감으로써 자기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조건에 저항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Kamberelis & Dimitriadis, 2005).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은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 둘째, 혐오폭력은 성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어떠한 억압을 행사하는가? 셋째, 혐오가 구조적 현상이라면 이 문제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방 법

참여자

성소수자 참여자로 성적 지향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반영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 소속 대학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홍보문을 관련 커뮤니티, 인권 단체, SNS에 게시하였고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지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선별하였다.

신청한 20명의 참여자 중 초기 전화 면담으로 정신적 혼란감을 호소한 2명과 지리적 거리 문제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한 최종 17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고 평균 연령은 26.3세였다

(SD= 4.7세, 범위= 19-38세). 성적 지향으로 레즈비언 5명, 게이 1명, 양성애자 3명, 팬섹슈얼(pan-sexual)¹⁾ 4명, 무성애자(asexual)²⁾ 2명, 폴리아모리(polyamory)³⁾ 1명, 미결정 1명이 있었다. 성별 정체성으로 시스젠더(cisgender)⁴⁾가 9명, 트랜스젠더(transgender) 및 젠더 비순응(gender-nonconforming)이 8명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여성에서 남성, FtM) 2명, 논바이너리(non-binary)⁵⁾ 2명, 트랜스페미닌(trans-feminine)⁶⁾ 1명, 젠더퀴어(gender-queer)⁷⁾ 2명, 젠더리스(gender-less)⁸⁾ 1명이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인지 연령은 평균 14.2세, 수용 연령은 평균 23.4세였다. 모든 참여자는 친밀한 지인이나 친밀한 성소수자에게 커밍아웃을 하였고, 9명(52.9%)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였다.

- 1) 생물학적 성, 성별, 혹은 성별 정체성에 구분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성적, 로맨틱 지향 혹은 정서적 끌림을 느낌.
- 2) 어떠한 성별 혹은 성별정체성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으며, 로맨틱 지향이나 정서적 끌림을 있을 수 있음.
- 3) 합의에 의해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러한 관계를 지향함.
- 4)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지정성별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함.
- 5) 여성, 남성의 이분법 분류에서 벗어난 스펙트럼 성별 정체성
- 6) 남성 지정성별로 태어났고 성별 정체성으로 남성성 보다 여성성을 지향하는 논바이너리 성별 정체성
- 7) 사회의 성적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퀴어로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며, 반드시 논바이너리는 아닐 수 있음.
- 8) 스스로를 어떠한 성별로도 정의하지 않음.

절차

연구 참여자의 방문시간 편의에 따라 구성된 세 개의 포커스 그룹 집단을 진행하여 각 집단 별 7명, 4명, 6명이 참여하였다. 소요 시간은 3시간이었고 심리상담 기관의 집단 상담실 안에서 진행하여 비밀보장 등 안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참여자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연구자), 그리고 녹음 및 전사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보조 진행자가 자리하였다. 진행자는 구두로 연구의 목적, 방법,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단 권리 및 불이익의 배제, 연구 관련 이득과 위험을 설명하였고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터뷰 시작 전 정체성에 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포커스 그룹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진행자는 질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질문은 “내가 경험한 혐오폭력은?” “혐오폭력 이후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혐오폭력에 대처하는 나의 시도는? 도움이 된 것과 어려웠던 것은?”이었다. 더불어 인터뷰 진행에 관한 규칙으로 비밀보장, 서로 발언권 존중하기,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발언 제재를 제시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진행자는 개입을 최소로 하였는데, 한 사람이 지나치게 길게 이야기를 하여 집단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느낄 때 시간제한을 알리는 정도였다. 인터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었다. 인터뷰 종료 후 사례비 3만원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각 포커스 그룹이 종료될 때마다 보조 진

행자는 인터뷰 전사 자료를 작성하였고, 연구자는 진행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을 기록해 두었다. Honneth(1992/2011)가 채택한 Mead의 관점에 따라 'I'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me'의 의미를 생성하고 조정한다는 상호작용론에 입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에 대해 연구자가 주요 진술로 여겨지는 문장을 발췌하여 요약한 뒤 하위주제와 상위주제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포커스 그룹에 참여했던 보조 진행자가 그룹 안에서의 맥락이 반영되었는지에 관해 주제 구성을 검토, 이를 반영하여 주제를 재도출하였고, 하위주제, 상위주제 및 범주 구성을 성소수자인 인권활동가와 함께 반복 검토하여 참여자들의 진술 안에 일관되게 발견되는 이데올로기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장점을 살리고자 인터뷰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 역시 연구자의 기록을 통해 분석의 단위로 활용하였다. Honneth 이론을 통한 논의 과정은 헤겔 철학 전공자에게 감수 받았다.

연구 믿음직성(trustworthiness) 보완 절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절차의 엄격성 측면에서 Chioncel et al.(2003)의 제안에 따라, 연구 질문에 따른 인터뷰 질문은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하였고 각 질문 당 약 한 시간의 논의 시간을 주어 개별 연구 질문에 동등한 집중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각 집단 별 소수의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발언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정 성소수자 집단에 속한 참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자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구성한 점에서 풍부한 자료 수집과 더불어 집단사고(group think)를 예방하고

자 하였다. 진행자는 논의를 편향시키거나 억제시키지 않도록 물러서 있었으며, 시간을 장악하는 참여자를 신중하게 제한하는 정도로 역할 하였다.

연구 신빙성(credibility, Lincoln & Guba, 1985)과 관련하여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는 질적 연구에 관한 전문 강좌를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 및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혹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성소수자와의 심리치료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성소수자의 일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혐오폭력 자료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 보조진행자,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그리고 철학 전공자가 코딩 및 해석 과정에 관여하였다. 코딩과 주제 도출에서 보조 진행자와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였고, 현상을 해석하는 경험과 언어를 갖춘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인 인권활동가와 반복하여 범주를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 경험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는 주제와 범주를 채택하였다. 더하여 헤겔 철학 전공자에게서 주제와 범주 및 이론 적용에 관한 비평을 얻어 반영하였다.

주관성 쟁점에 관하여, 후기실증주의 질적 연구 관점에서는 외부인 감수를 통해 연구자 편향을 줄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구성주의 및 비판이론 관점에서는 연구자를 공동의 의미 구성자로 보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이고자 한다(Morrow, 2005). 이에 주관성을 인정하고 성찰성(reflexivity)을 강화하고자,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는 사전 작업으로 도서를 읽고 다양한 정체성 개념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 발견의 즐거움과 해방감

을 느꼈다. 또한 연구자가 속한 사회문화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기술정신병리학이 관여하는 연구자의 편견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정신 장애인과 성소수자의 교차(intersect)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진술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과정 동안 다양한 삶과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진술함,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려져야 한다는 관점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Honneth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의 안내에 따라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관련 학술행사에 청중으로 참여하는 등 이론적 배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본 인터뷰는 개인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 논의가 기본 재료이고, 참여자 사이, 그리고 연구자-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화 과정이 되며, 또한 진술 속 이데올로기 발견이 연구 목적의 일부였기에 인터뷰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를 수행하는 것이 신빙성 보완에 기여할 것인가에 고민하였다. 연구자는 믿음직성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쓸지 선택해야 하는데(Korstjens & Moser, 2018),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술 타당도(descriptive validity)와 연구 질문과 관련된 과학적 해석이 할 수 있는 이론 타당도(theoretical validity)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참여자 검토를 통해 단지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 획득의 주요 전략이 되기에는 비판이론 연구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Sandelowski(1993)에 따르면 참여자의 이야기는 시간에 한정된 정치적 도덕적 행위로서, 참여자 검토를 '정정(correction)'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 분석해야 할 새로운 이야기'로 보

야 하며, 이야기에서 시간적, 정보적, 혹은 의도적 일치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분석 오류가 될 수 있고, 맥락에서 벗어난 참여자 검토가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및 이론 타당도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연구의 주요 질문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주요 질문에 Honneth 이론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이론 지식'이 아닌 '개별 경험'을 묻는 방식을 사용하여 Burns(1989)가 제시한 절차 엄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Morrow(2005)에 따르면 비판이론에서 침묵당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향상과 사회 정치적 변화의 목적 달성에 관한 결과적 타당도(consequential validity)와 비판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전복적 타당도(transgressive validity)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과 일치하게 이러한 측면에서 성소수자 혐오폭력을 정의하고 이에 심리학자로서의 동참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였다.

결 과

표 1에 나타나듯이, 분석 결과 59개의 하위 주제, 15개의 상위주제, 3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방법에 제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세 가지(내가 겪은 혐오폭력은?, 혐오폭력 이후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혐오폭력에 대처하는 나의 시도는?)에 따라 각기 최종 범주 세 가지로 '존재의 말살', '정처 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 '인정투쟁: 연대 속에서 존엄성 실현 확장'을 도출하였다.

표 1. 주제 및 범주에 관한 표

하위주제	상위주제	범주
성소수자 존재를 확인하는 축제에서 폭력을 겪음 공무 집행자가 폭력을 방관함 선거기간 정치인이 무시 자행 공공장소에서 버젓한 무시 상징물을 훼손당함 온라인의 잔인한 표현	공적 공간에서 무시	
아웃팅 당한 후 낙인과 집단 배제의 위협 성별 이분법과 이성에 잣대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 취급 신념을 내세워 가치를 폄하함 재미나 장난으로 취급함 진정으로 알려하지 않음 정체성이 이유가 되어 성폭력을 겪음 길거리 괴롭힘 없는 존재 취급함	일상에서 무시	존재의 말살
퀴어 집단 안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함 퀴어 집단 안에서도 규정된 정체성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됨 퀴어 집단 안에서도 다름은 공격의 대상임	퀴어 집단 안에서 편견과 배격	
가족에게 커밍아웃은 중요함 가족의 무지와 몰이해에 대한 좌절과 체념 가족의 부정과 숨김 가정 폭력	가족 안에서 정체성 부정과 모욕	
무시 체험의 다양한 감각적 비유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무력함과 지침 자책감 두려움과 공포 격분과 이해할 수 없음	말살 당함의 감각 가로막힘의 감정	정처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
혐오를 축소함 혐오에 동조하여 스스로를 숨김 묻어두고 피함	은폐	

표 1. 주제 및 범주에 관한 표

(계속)

하위주제	상위주제	범주
<p>혐오에서 살아남느라 겪은 대가</p> <p>혐오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부정함</p> <p>온전한 나로서 살 수 없음</p>	<p>존엄을 잃음</p>	
<p>두려움으로 고립되지만 진심으로 수용 받고 싶음</p> <p>상처받지 않는 세상으로 문 닫고 들어감</p> <p>관계가 한정됨</p> <p>발붙일 수 없는</p> <p>드러내지 않음</p> <p>감추고 숨김</p> <p>혼자 살아남을 궁리를 함</p>	<p>세상에서의 소외</p>	<p>정처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p>
<p>담아두지 않음</p> <p>동조하지 않고 맞섬</p> <p>원인을 나 자신이 아닌 혐오에서 찾음</p> <p>나를 되찾고 표현함</p>	<p>드러내기</p>	
<p>가족에게서 안정을 얻음</p> <p>믿을 수 있는 지지자들의 안전망</p> <p>대화하고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얻음</p> <p>비슷한 경험을 한 퀴어에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함</p> <p>퀴어들이 모여 빛이 됨</p> <p>유머로 전환함</p>	<p>정서적 연결 속에 살아남음</p>	<p>인정투쟁: 연대 속에서 존엄성 실현 확장</p>
<p>능력을 키워 사회의 인정을 받음</p> <p>인간관계와 경제력을 쌓음</p> <p>잘 살아감</p>	<p>존재 입증의 개별 노력</p>	
<p>살기 위해 논문을 찾아봄</p> <p>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움</p>	<p>인지적 통찰</p>	
<p>인권 운동에 참여함</p> <p>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함</p>	<p>법과 제도 변화를 위한 투쟁</p>	
<p>인식을 높이는 노력으로 혐오 반대 분위기에 기여</p> <p>다양한 실천으로 사회에 참여</p> <p>같이 살아가기를 바램</p>	<p>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연대</p>	

첫 번째 범주: 존재의 말살

첫 번째 ‘존재의 말살’ 범주는 4가지 상위 주제와 21가지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네 가지 상위주제에 따른 하위주제를 이어서 기술하였다.

상위주제 1: 공적 공간에서 무시

참여자들은 공적 공간에서 겪는 신체 침해, 권리박탈, 가치부정을 지적하였다. 퀴어 축제 및 퍼레이드(이하 퀴퍼), 공중과 방송, 공공장소, 온라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가치 절하가 행해졌다. 퀴퍼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이지만 혐오표현은 지배적이고, 2018년 특정 지역에서 물품 훼손, 퍼레이드 참가자 감금 등의 사태가 있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종교 집단과 대치한 경험에서 ‘상상치 못한 폭력’을 겪었다고 회상하였다. 더하여 사태에 대한 경찰의 방관은 권리박탈의 경험과 같았다.

혐오자들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사진 찍고 있었다.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계속 찍더라. (...) 그때 제 앞의 기수가 너무 화가 났는지 깃발을 막 흔들었더니 경찰 방어막을 뚫고 혐오세력이 난입을 해서 깃발 뺏아서 부러뜨렸다. 사람도 때리는 줄 알고 무서웠다. 그래서 더 깃발을 못 들었다. (...) 깃대에 나를 대입했던 것 같다. 경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깃대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 깃대처럼 허리가 뻐각 부러져도 저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까. 다리 밑에서 ‘우리는 여기 있다’ 막 외쳤을 때도 많이 울컥했다.

같이 간 일행이 너무 많이 울었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인천 퀴퍼는 (...) 행동반경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 이전부터도 퀴어 프렌들리(queer friendly) 한 기독교 친구, 성직자, 전도사도 알고 지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어도 연결고리가 없다면 나를 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럽게 된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했다. 퀴퍼에서는 직접 몸 대치를 했기 때문에.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제일 심했던 게 인천 퀴퍼에서 혐오자가 그냥 가득 차 있었다. 경찰까지 방관을 하는 상황이었다. (...) 혐오폭력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였었다. (27세, 논바이너리, 팬섹슈얼)

선거기간이 되면 공중과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정치인 등 공인이 가하는 모욕이 발생했다. 한 참여자는 미디어에서 대선 후보의 혐오 표현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상담도 받았다고 하였다(28세, 남성, 무성애). 다른 참여자도 동의하였다.

대선 토론 때 어떤 후보가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공중과 대선 토론에서 하기도 하고. 막 길거리로나 시청, 광화문 정부청사에 보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이버 상 댓글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정치 세력화 되면서 밖으로 나오고 오프라인으로 혐오의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본다. (28세,

남성, 게이)

대통령 후보일 때, (...) 실시간으로 보고 몸살이 났다. (...) 나라와 정부가 날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되게 우울했던 것 같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상징물을 훼손당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였다. 참여자는 성소수자의 주장을 담은 대자보나 성소수자 상징물이 찢기거나 훼손당하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28세, 남성, 무성애). 또한 여러 참여자들은 온라인의 잔인한 표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터넷 댓글들을 볼 때 마음이 되게 안 좋다. 텍스트를 넘어서 린치 당하는 사진 올라오면 감정이입이 많이 된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다. 제 친구 중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은둔이라고 해서 동성애자 친구가 아예 없는 친구가 있다. 한번은 (개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예전 올랜도 총기난사사건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은 거다. 사람들이 이런 댓글 달았다고, 정말 나 죽어야 되냐고 하더라. 나는 그런 댓글 안 본다. (28세, 남성, 게이)

나도 최초의 폭력은 인터넷에서 보는 댓글들이었다. 16살 때, 11년 전이다. 인터넷 한참 했는데 *** 뉴스나 인터넷 댓글 보면 그때는 성적 지향 확립 전이었는데도 상처 많이 받았다. 동성애자 *** 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댓글에 '잘 죽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갈거다' 라는 말을 보고

정말 상처 많이 받았다. 그것도 크리티컬한 혐오폭력이라고 생각한다. (25세, 여성, 레즈비언)

상위주제 2: 일상에서 무시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물리적 학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박탈, 그리고 성소수자 삶에 대한 가치격하를 경험하였다. 아웃팅이란 성소수자 정체성이 본인 동의 없이 드러나는 경험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아웃팅 중 낙인당하고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낙인에는 신체 폭력이 동반되었고 배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회의 박탈을 야기했다.

대학 다닐 때 아웃팅이 되었다. (...)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어느 날 사물함이 뜯겨져 있고 전공 책이 다 찢어져 있었다. 어떤 미친 사람의 소행일거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제 연구복이 게시판에 붙어 있고 '더러운 레즈비언, 남자 맞을 못 봐서 그렇다, 어떻게 하고 다니더니 여자나 만나네' 하고 쓰여 있었다. 그때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썼던 편지도 걸려 있었다. 상처나 뭐 그런 거 보다는 할 말이 없었다.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 하며 '수업 가지 말까...' (...) 그때 휴학계를 내고 집으로 갔다. 부모님 상의도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못 갔다. (29세, 여성, 레즈비언)

친구들은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시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레즈비언 '걸레년'이라고 (...) 앞에서 이야기 하니

까 더 무서워졌다. (...)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니가 먼저 고백하고 재를 좋아하는 게 사실이야?”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네가 레즈비언이면 너랑 더 이상 친구일수 없지”라고 했다. 반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가 말했다. 그때 나는 내가 아니라고 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서로 왕따 당하고 괴롭힘이 무서우니까 서로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동성애자다 그런 상황이 됐다. (나와 사귀) 그 친구가 결국 왕따가 됐다. (23세, 여성, 양성애)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가치격하는 성별 이분법이나 이성에 이데올로기에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 취급’을 당하는 경험에서 드러났다. “다름을 드러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데(26세, 젠더퀴어, 폴리모리)” 경험에서부터, 사회적 고정관념과 다른 삶을 살면 비난을 당하거나 정체성을 추궁당하는 경험도 있었다.

굳이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물어 보니까. (직장)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는 게 스탠다드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다. 저는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니까 (상사가) 결혼 못하는 남자는 남자취급도 못 받는다고 말한다. 그럴 때 나는 “우린 세대가 다르잖아요.” 라고 받아치고 그랬다. (상사)가 남자 분인데 제가 이런 스타 일이고 그러니까 (상사)마저도 “설마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지?” 라고 묻는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어진다. (28세, 남성, 무성애)

성별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모습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배제되는 경험은 어려서부터 지

속되었다. 사회적 고정관념에 맞추어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한계, 그리고 이것이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의 권한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이야기되었다. 다음 참여자는 “현실이 복잡해진다.”라고 말했다.

덜 꾸미거나 그런 날에는 호르몬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을 간다. 패싱(겉으로 봤을 때 특정 성별로 여겨지는)이 더 될 확률이 높은 쪽으로 (화장실을) 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불편할 때가 많아진다. 그래서 항상 더 빠 세계 꾸미고 나가거나 한다. 늘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다. 전날, 오늘 내가 다니는 화장실이 달라지니까. 그걸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하는 생각이 든다.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신념을 배경에 둔 가치부정과 편협 또한 발견되었다. 첫 포커스 그룹에서는 트랜스젠더-배제-급진-페미니스트(TERF)라는 신념자들이 선동하는 트랜스젠더 혐오 사건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한 참여자의 경험에서, TERF인 그의 친구는 그에게 “난 여자고 넌 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참여자들은 TERF와 ‘싸우는’ 경험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많은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정서적 배려를 박탈당하고 신체가 침해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행하는 무례한 언사에서부터, 길거리 괴롭힘, 그리고 성범죄 등 피해 경험이 나타났다.

누구 만나도 ‘걔 게이 같다’ ‘난 게이가 싫어’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상처인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 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 누군가한테는 정체성이라는 게 쉽게 장난의 대상이라는 게 되게 그렇다. (28세, 남성, 게이)

내가 처음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때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니까 일련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수술의 절차였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나의 생식기 상태가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은 적어도 향후 4번은 만나야 할 수 있는 질문 아닌가.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저는 프라이드 배지를 달고 다닌다. 작년 길에서 배지 보고 “사내 새끼가 그런 것을 달고 다니냐”는 식으로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다. 계속 쫓아 다니는 것 같았다. (27세, 논바이너리, 팬섹슈얼)

여러 참여자들은 진정으로 알려하지 않는 무례한 언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헤너’(cisgender heterosexual, 이성애자 여성) 사람들과 이야기 했었다. 그때 페미니즘 수업이 생겼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들이 페미니즘에 발을 넣으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꺼내더라. 생각했다. ‘애가 지금 나를 면전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물었다. 내가 그들에게 “살면서 트랜스 여성 만나봤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만나 본적 없고 그렇게 말하면 자

기는 할 말 없다”고 하더라.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참여자 중 두 명은 정체성을 밝힌 이후 이를 빌미로 하는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 사건 하나 겪고 나니 세상 모든 게 힘들고 ‘내가 오픈(정체성을 드러냄)하고 살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무것도 안하고 숨기면서 살았다. 흔히 말해 벽장 생활을 했다. (29세, 여성, 레즈비언)

한편, 정체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못하여 ‘없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일단 인식하고 담론이 시작돼야 하는데 혐오 발언부터 시작하고 거기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 엄밀히 따지면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남성)은 여전히 가시화가 잘 안되어 있다. 아직까지 사람들 이야기 할 때 트랜스 여성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성적 지향을 정신장애 증상으로 여겨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신장애와 같은 소수자 정체성이 교차할 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정신장애 증상이라고 무시 받았다.

나중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됐다. 에이섹슈얼(asexual, 무성애)을 장애라고 규정한 게 잘못된 거지, 장애 특성에 에이섹슈얼이 겹칠 수 있다. 어떤 단

체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에이섹슈얼이 아니다 라고 한다. 마치 성욕은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것이고, 판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다. (27세, 논바이너리, 팬섹슈얼, 발달장애 스펙트럼 진단)

상위주제 3: 퀴어 집단 안에서 편견과 배격

앞선 ‘일상에서 무시’와 일관된 주제이나, 그 맥락이 독특하여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의 편견과 배격’,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정과 모욕’을 별도 상위주제로 구성하였다.

여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을 가하거나, 규정된 정체성에 따르지 않으면 배제하는 현상을 호소했다.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도 다름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한 참여자는 “소속 안에 있어도 소외된 듯한(24세, 젠더퀴어, 팬섹슈얼)” 느낌을 이야기했다

헤테로(heterosexual, 이성애자)가 아닌 트랜스젠더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취급을 많이 받는다. 또 패싱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박하게 군다. 너는 좀 노력을 해라. 네가 그래 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분위기. (...) 정체성 이름 하나 같다고 해서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름 하나로는 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레즈(비인) 카페에서 바이(섹슈얼)가 여자 친구 찾는 것이 공격당했다. 그런걸 보는 게 힘들었다. 혐오폭력은 밖에 있는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없게 하는 것

이 혐오폭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29세, 여성, 레즈비언)

제 학교가 여대인데 여대 퀴어 동아리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끈대 짓을 하고 위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레즈(비인)인 거다. 그 사람들이 대화를 주도한다. 그리고 ‘여자 맛을 봐야 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22세, 여성, 양성애)

상위주제 4: 가족 안에서 정체성 부정과 모욕

거의 모든 참여자에게 가족에게 커밍아웃은 중요한 주제였다. “중요한 사람에게 자기 삶의 중요한 면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마음(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이었다. 가족에게 처음부터 인정과 수용을 경험한 참여자는 단 1명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무지나 몰이해에 대한 좌절과 체념을 겪고 있었다.

가족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데 그 기저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하면서도 씩씩한 뒤통이 있다. (34세, 여성, 레즈비언)

물리적인 것 언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얼굴 표정도 혐오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에게 “바이야” 라고 말했을 때 “뭐?” 라고 하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울컥). (...) 가끔씩 엄마가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게 충격적일 때가 있다(눈물). (...) 엄마 말이 “기껏 대학 보내 왔더니 퀴어가 됐네.” (22세, 여성, 양성애)

부모님과과의 대화의 결론을 이야기 하면 “나는 이대로 살거다” 주장했고 부모님은 “네가 그렇게 계속 살면 다 때려치우고 시골 가서 목매달고 죽어버리겠다” 선언했다. 여기서 모든 대화가 종료되었다. (...)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라면 난 (그 때) 집을 나왔을 거다. 근데 부모님 본인이 스스로를 죽이겠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아, 나에게 20대 전반을 좌우하던 중요한 사건을 가족은 보지 않고 있었구나.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당시에 부모님이 대학원을 그만 둘 거냐 그런 질문했다. 트랜스젠더는 유흥업소에 다닐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저는 대학원 가서 전공을 살릴 생각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커밍아웃 이후에도 부정하거나 숨기는 가족의 모습도 있었다. ‘대학에 가면 달라진다고 하거나(25세, 여성, 레즈비언), 쿼어 친구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34세, 여성, 레즈비언). 부정은 없던 일삼기, 부인하기 등 여러 모습이었다.

나는 엄청 많은 시뮬레이션과 루트를 세웠는데 (커밍아웃 이후에)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만 빠져거리며 살고 있었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을 때 대화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는 이제 ‘그거’ 아니다

했다. 부모님 말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반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돼서 답답한데, 가족 내 분위기가 구도가 3:1로 조성이 되어 버리니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가족이 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님이 가정폭력을 했는데 너 여자친구 사귀면 바로 집에서 나갈 줄 알아라 그래서. 트렁크를 항상 장롱 속에 넣고 다녔다. 언어폭력도 당했다. 호모 더럽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답답했다. 폭력도 많았다. 사람이 되게 많이 맞으면 멍이 빨갛고 파랗게 되었다가 갈색이 되는데 그게 몸에 남아 있었다. 교복 입을 때마다 조마조마 했고 치마 입는 것도 싫었다. 벤치에서 자거나 그랬다. (이제는)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24세, 젠더퀴어, 팬섹슈얼)

두 번째 범주: 정치 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

두 번째 ‘정치 없는 무국적자: 존엄함으로부터의 소외’ 범주는 5가지 상위주제와 18가지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상위주제 1: 말살 당함의 감각

참여자들을 감각적으로 ‘말살’을 체험하였다. 혐오는 “굴레와 상처, 박혀서 안 뽑히는 가시”, “일상에서 마주하는 숨막힘”, “살얼음 판 위 생존 지대 찾기”, “갈기갈기 찢어버리

는”, “사람을 부러뜨림”, “떠안고 가야 할 짐”, “정치 없는 무국적자”로 경험되었다.

상위주제 2: 가로막힘의 감정

참여자들은 또한 여러 감정을 체험했다. 가장 자주 등장한 감정은 무력감이었다. 무지와 무관심에 무력하고 지쳤다고 하였다. 무지에 대응하여 설명하느라 지치고, 소진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폭력’이라 무력하다고 하였다.

난 그 사람들이 그런 혐오발언을 하는 게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게 너무 무섭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서 이 사회의 건전함과 올바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28세, 남성, 게이)

한 참여자는 ‘내가 나임을’ 타인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가로막히자, 모순이라는 복잡한 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대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그래? 이게 설득이 필요한 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자책을 이야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커밍아웃 후 성폭력을 겪은 참여자는 커밍아웃한 스스로가 바보 같다 자책했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믿은 걸 자책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다.

사람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 피해심이 심했다. 개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비인격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저를 많이 닮았다. 말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다. (25세, 여성, 레즈비언)

참여자들은 폭력 경험을 잇기 힘들다고 했다.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포에 대한 반응으로 격분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떠올수록 무서운 것도 있고 (아까)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떠올렸을 때 흉통이 느껴지기도 했다. (...) 혐오폭력을 여러 번 당하고 몇 년 쌓이다 보니, 특히 인천퀴퍼 물리적 위협 후, 사소한 것에도 잘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증가했다. 경계가 심해졌다. 몸이 긴장하게 되는 상태다. 병원에서 약 처방도 받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어렸을 때 폭력 당하며 자랐고 아무리 어려도 내가 칼을 들면 상대는 쫓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곤 했다. 혐오폭력이 있다면 대학 와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항상 분노가 차 있었다. (24세, 젠더퀴어, 팬섹슈얼)

상위주제 3: 은폐

만연한 무시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이 반응하는 방법을 바라보며 ‘은폐’의 체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오히려 무시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묻어두거나, 피한다고 했다. 스스로 검열하고 무시당함을 덮는다고 했다. “나를 가려야 하니까” 혐오에 동조하는 척 할 때도 있었다(34세, 여성, 레즈비언). 혐오 표현에 논쟁을 벌이다가도, 자기 경험에 대한 의심으로 돌아갔다.

근데 가끔씩은 내가 겪은 일이 객관적으로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는가 잘 판단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더라.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항상 피해자일 때 생각한다. 내가 그때 화냈어야 하나, 참았어야 했다. 가해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그 사실 자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 (25세, 여성, 레즈비언)

상위주제 4: 존엄을 잃음

참여자들은 혐오에서 살아남느라 겪은 대가에 대해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표현했다. 참여자들은 “혐오폭력은 행동반경을 줄여 버린다(20세, 젠더리스, 팬섹슈얼)”는 말에 동의하였다.

회장실에서 교수님 만났는데 (...) 내 머리가 기니까 여자인줄 알고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줄 알고 놀라서 화를 내면서 갔다. 문제는 제가 대학원 갔는데 전공 필수 담당이 그 교수님이었다. 되게 무서웠다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첫 학기 수업을 안 들었다. (...) 발표 시키면서 면박도 많이 주는 사람이라 이런 것(정체성)에 대

해 책잡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의 행동반경이 좁아졌던 경험들이 있다.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참여자들은 “살아남았다”는 말에 수긍했다. 대체로 정체성을 인지하거나 수용하는 연령은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시기’였고 그 시기를 힘들게 보낸 시간이 ‘아깝다’고 했다(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 혐오경험이 성격에 영향을 남긴 것을 안타까워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정체되지 않은 남중남고 아이들의 혐오 표현이나 따돌림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안으로 많이 침잠했던 것 같다.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변화이고 성격이 형성될 때 생긴 변화니까 지금까지 영향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28세, 남성, 게이)

참여자들은 혐오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부정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죄의식과 자기혐오, 자기 의심, 자기 부정을 겪었다. 참여자들은 자기부정에 슬픔과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중적’이라고 느꼈다.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생이 망가졌고 리셋 말고는 되돌릴 수 없다(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고 생각했던 시간도 이야기 했다. 무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저도 설자리를 잃는다는 느낌, 제 판단력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다들 나에게 넌 잘못되었다고 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니까 어디서도 답을 구할 수 없었다. 제 스스로의 판단력도 많이 깎아 먹었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사회적 혐오로부터 오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켜 나간다. 나는 내가 사는 내 세상에 잘 살긴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 (하지만) 스스로 혐오성이 짙다 보니까 한번 씩 올라온다.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34세, 여성, 레즈비언)

그 결과 참여자들은 온전한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우선 사회의 부정적인 생각은 정체성을 찾는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일상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머리를 비우고 다니고(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사회적 페르소나를 분리한다(28세, 남성, 게이)”고 표현했다.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숨겨왔던 기간 동안 (...) 악의가 없어도 거짓말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다.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상위주제 5: 세상에서의 소외

무시의 결과 참여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차 분리되었다. 커밍아웃을 거의 하지 않은 참여자 두 명에게서 ‘수용 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공포(34세, 여성, 레즈비언; 28세, 남성, 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열리면 죽을 것

같아 자신을 움아매는 마음(34세, 여성, 레즈비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시에 “진심으로 수용 받고 싶다”는 말에 동의하였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세상과의 문을 닫고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했다(28세, 남성, 게이). 이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한정되었다. 인간관계가 성소수자로 형성되거나, 관계 반경이 좁아지거나, 멀어지는 관계가 생겼다. 어떤 참여자들은 이성애 친구들이 줄거나, 이성애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상대방 쪽에서 멀어지기도 하였다.

가족들에게도 커밍아웃 했는데 가족들에게 받은 혐오발언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그런 친구들만 만나면 너의 세계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이게 짜증나는데 부정을 못하겠는 거다. 나 상처받지 않으려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잘못된 건가. (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그 친구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아’ 하고 놀라더라. 그 이후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멀어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으면 회사 다닌다는 대답 정도고. 뭐라고 욕하면 대놓고 싸우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슬프더라. 처음엔 나를 자책했었는데 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지금은 ‘재는 저 정도 인간이구나’ 생각한다. (28세, 여성, 레즈비언)

한 참여자는 “둥둥 떠다니는”, “버려진”, “발붙일 수 없는”의 표현으로 이질감을 드러냈다.

물과 기름 같았다. 비성소수자의 세계는 마치 물과 같고 제가 있는 퀴어의 세계는 마치 기름 같았다. 섞일 수 없이. 나는 이 사람(퀴어)들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비성소수자)들로부터 똥똥 떠다니는 기분. 비성소수자인 사람들과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퀴어인 사람은 딱 한 명 만나고, 그 외에는 안 만나는 것 같다. 버려진 기분이 싫으니까.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도 뭔가 섞이지 않는다는 기분. 나는 이 세계에 절대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 (25세, 여성, 레즈비언)

받아들여지지 않음 속에서 참여자들은 ‘단혀갔다.’ 이해받지 못함 속에서 ‘말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강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 정신과에서 다른 일로 상담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겪는 것에 대해 전부 말할 수 없다(울컥). 아무리 페미니스트 친구여도 내가 말하는 어떤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가족에게도 좋아하는 친구나 애인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울컥) (20세, 젠더리스, 팬섹슈얼)

한 참여자는 오래도록 ‘감추고 숨김’을 해야 했다. 드러나면 ‘세상의 비난이 쏟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감추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게 되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뒤에서 “쟤 그런 거 아냐?” 이런 말 들리면

내가 게이 같은 모습을 보였나 싶어서 덜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탓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 와서.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뭔가를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이상해져 버린거다. (28세, 남성, 게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참여자들은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특히 가족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의 참여자들이 그러했다. 가족이나 지지대가 없어졌을 때 스스로 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살아남을 궁리’라고 표현했다(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34세, 여성, 레즈비언).

세 번째 범주: 인정투쟁: 연대 속에서 존엄성 실현 확장

마지막으로, ‘인정투쟁: 연대 속에서 존엄성 실현 확장’의 범주는 6가지 상위주제와 20가지 하위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상위주제 1: 드러내기

참여자들은 혐오를 담아두지 않는 것에서부터, 동조하지 않고 맞서기, 나아가 스스로를 되찾고 표현하기를 하였다. 담아두거나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포기했고(28세, 남성, 무성애; 23세, 여성, 양성애), 원인을 스스로가 아닌 혐오에서 찾거나, 혐오하는 상대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절하하는 방법도 있었다(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34세, 여성, 레즈비언).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에 맞서거나 논쟁하는 참여자도 있었고(38세, 여성, 무성애), 물이해를 직접 정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트랜지션 과정에 있을 때 모두가 (나에게) ‘언니!’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내가 지금 정정을 좀 해야겠다”라고.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참여자들은 표현하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되찾았다. 이성애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면서 대응하거나(34세, 여성, 레즈비언), 아웃팅을 거부하고 대범하게 커밍아웃하거나(29세, 여성, 레즈비언; 25세 여성, 레즈비언; 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드러냄을 통해 도와주는 동지를 찾았다(34세, 여성, 레즈비언). 드러냄을 통해서 참여자는 “나를 완전히 다시 찾았다(29세, 여성, 레즈비언).”

상위주제 2: 정서적 연결 속에 살아남음

드러내기의 배경에는 정서적 연결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믿을 수 있는 지지자들의 안전망을 꾸리고, 퀴어들 간에 연결되었다. 혐오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동지애’로 스스로를 드러냈다(29세, 여성, 레즈비언). 이들과 대화를 하고 목소리를 모아 가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지지자에 대한 ‘믿음’은 ‘혐오폭력으로부터의 튼튼한 안전망’이었다(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안전망은 ‘같은 편(24세, 젠더퀴어, 팬섹슈얼)’, ‘시스젠더(cisgender)나 이성애자 엘라이(ally) 친구(27세, 트랜스페미닌, 여성애)’, ‘가족(26세, 젠더퀴어, 폴리아모리)’이 구성했다. 가족이 지지적인 한 명의 참여자는, 가족들에

게 이야기하고 혐오에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했다(26세, 젠더퀴어, 폴리아모리).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 한 것이 16살 때였다. (부모님은) “네가 세상을 못 겪어서 그렇다. 네가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하면서 유배 보내듯 나를 캐나다로 보냈다. 그게 하필 캐나다로 보냈었는데. (모두 웃음) 한번은 주립 도서관 갔는데 거기에 ‘트랜스 피플 웰컴(trans people welcome)’이라고 쓰여 있더라. 오히려 난 거기 가서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이곳에서는 내가 쓰러져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 (모두 웃음) (19세, 트랜스젠더FtM, 성적지향 미발견)

참여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다른 퀴어의 이야기를 접했다. 유명인사의 커밍아웃도 연결의 경험이었다. 또한 상징물을 통해 연결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퀴어 퍼레이드, 퀴어 모임, 퀴어 워크숍을 다니면서 ‘고마움’을 느꼈다(25세, 여성, 레즈비언). 그는 퀴어 모임을 ‘빛이다’라고 표현했다. 한 참여자는 ‘최악의 시간을 지나와 살아있음’을 서로 공유하자고 했다.

아, 나 살아있다. 너 살아있니? 우리 살아 있구나! 그럼 됐다. 이런 연결. (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한편,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혐오 경험을 말하기 어렵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실제로 첫번째 포커스 그룹은 혐오표현이나 사

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같은 이슈가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일반화 시켜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너무 다 드러내면 상대방도 힘들어 할 것 같다. 상대도 뭔지 아니까. (19세, 트랜스젠더FtM, 성적지향 미발견)

참여자들은 대화할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힘들었음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모으면서 풀었다. 한 참여자는 혐오 세력을 놀리거나 희화화 하면서 유머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유머 뒤에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그는 “혐오를 없애자는 목소리를 모으는 게 힘이 된다”고 하였다(23세, 논바이너리, 양성애). 이렇듯 희화와 적대를 넘어, 참여자들은 연대 속에서 가치를 넓혀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존재 입증의 개별 노력, 인지적 통찰, 법과 제도 변화를 위한 투쟁, 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연대가 이들의 방식이었다.

상위주제 3: 존재 입증의 개별 노력

참여자들은 자기를 계발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능력을 키우는 목표는 사회에 인정받기 위함에 있었다. 인간 관계망과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27세, 트랜스페미닌, 양성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려고 노력” 했다(28세, 여성, 레즈비언).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잘 알고, 이에 따라 잘 살아가는 방식으로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에 저항”한다고 하였다(26세, 트랜스젠더 FtM, 범성애).

상위주제 4: 인지적 통찰

참여자들은 공부하고 나눔으로써 사실은 무시가 개인 문제가 아닌 역사적 문제임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학술 논문을 읽고 스스로 정리를 했다(20세, 젠더리스, 팬섹슈얼; 27세, 트랜스페미닌, 양성애). 이 참여자는 “살기 위해 논문을 봤다”고 했다(27세, 트랜스페미닌, 양성애).

상위주제 5: 법과 제도 변화의 투쟁

참여자들은 인식 개선 운동이나 인권 운동에 참여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권리 획득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상위주제 6: 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연대

나아가,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혐오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차이를 인정해 나가는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로 혐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회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19세, 트랜스젠더FtM, 성적지향 미발견)”했다. 참여자들은 옹기 알도록 설명을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주변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어 같이 인식을 높이고, 인권단체에 기부를 했다. 한 참여자는 서로 같이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 내가 거기에 있으니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하고, (서로를)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34세, 여성, 레즈비언)

포커스 그룹 상호작용

세 포커스 그룹의 공통점은, 대체로 적나라한 혐오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슷한 내 경험이 상대에게 트리거(trigger)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19세, 트랜스젠더FtM, 성적 지향 미발견).”는 표현에도 드러났듯이, 마치 서로에게 다시 상처를 입힐 법한 표현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삼가고 말을 고른다는 인상이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혐오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대체로 말 한마디에도 곧 맞장구를 치는 분위기로, 각자 살아오면서 찾아낸 대처 방식들에 공감하고 자신들만의 유머에 폭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간혹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찰나의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 조심스러운 질문 방식과 대답에 대한 수궁으로 비추어봤을 때 상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화하려는 듯이, 조용히 곱씹어 보는 모습이 더 잦았다.

자책과 혼란이 표현됐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말이 없는 사람을 인식하고 초대하는 상호작용도 있었다. 대화는 촉진자의 별다른 개입 없이도 대체로 혐오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진전해 나가는 인상이었다. 은폐의 경험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참여자들은 은폐 속에서도 자신이 최소한의 자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커스 그룹 안에서 그들이 겪은 가로막힘과 은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무시에 대한 반응임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치를 부정당한 경험을 선언하는 과정은 참여자 서로의 반응을 통합해 가는 상호작용을 통해 오

히려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 되었다. 즉, 작은 포커스 그룹 사회 안에서 상호인정의 체험이 일어났다. 커밍아웃을 거의 하지 않은 한 참여자는 감추고 숨기는 삶의 방식을 드러냈을 때 공감을 얻자, 곧 자기가치를 지켰던 경험 역시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혐오에) 동조할 수는 없다. 입을 다물지언정. (...) 동조한 적은 한 번도 없다.(28세, 남성, 게이)”고 말했다.

가족에게 수용 받은 참여자는 단 한명이었는데(26세, 젠더퀴어, 폴리아모리), 그는 수용 받은 경험을 주저하듯 이야기하였다. 가족과 여전히 같이 살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과 결국 가족과 분리된 사람들, 커밍아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구분되는 모습도 있었다.

두 번째 포커스 그룹은 대체로 동성애자로 구성되었고 트랜스젠더가 한명이었는데, 이러한 구성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사회는 성소수자라고 뭉뚱그려 지칭하지만, 다양한 삶의 맥락과 다양한 정체성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목소리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그는, “이름 하나로 남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같이 살아남자”라고 말하기도 했다(26세, 트랜스젠더FtM, 범성애).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철학자 A. Honneth(1992/2011, 2001/2017)의 인정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비판 이론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의 현상, 그리고 성소수자의 체험과 저항을 읽어

내고자 하였다.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혐오 폭력은 ‘존재 말살’ 행위로 이는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일상,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 일어났다. 혐오폭력을 겪은 성소수자는 존엄을 훼손당한 ‘정치 없는 무국적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말살은 감각적으로 체험되었다. 혐오폭력을 겪은 성소수자는 가로막힘의 감정과 은폐를 겪었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존엄을 잃었으며, 세상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성소수자는 드러내기를 시도하였다. 정서적 연결 속에서 살아남음이 가능하였고, 개인은 존재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인지적 통찰을 얻고자 하고, 법과 제도 변화를 위한 투쟁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혐오에 반대하고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었고 따라서 이는 연대 속에서 존엄성을 실현을 하고 확장하는 인정투쟁으로서 의미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의 ‘정치없는 무국적자’ 범주는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Sung & Lee, 2010)”이라는 선행 연구 표현과 일치한다. 같은 집단인 미국 성소수자 청소년 및 초기 청년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 연구 (DiFulvio, 2011) 결과도 유사하였다. 이들은 단절(disconnection)을 겪었으며,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회복력을 발휘한 바탕은 ‘타자(Other)’로서의 위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수용(acceptance of self)과 자긍심 (sense of pride)을 위해 노력한 점이었고, 기저에는 연결(connection)이 있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Honneth (1992/2011) 이론을 기반에 두어 성소수자의 드러냄과 인정에 도덕적 목적이 관여함을 드러냈다. 개인이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존엄함

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때문에 무시라는 혐오를 겪는 성소수자는 인정 획득을 동기로 자기를 공동체에 드러냈다. 사회 공동체가 보편적 가치 지평을 넓히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이 드러냄에 대한 상호인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혐오폭력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가를 보았을 때, 성별 이분법, 이성에 이데올로기, 종교, 그리고 집단 신념이 지닌 편견에 의해 혐오는 정당화 되었다. 이것은 신체 및 정서적 학대의 형태로, 동등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형태로,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모욕하는 형태로 일어났다. 미시 차원에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 즉,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편견을 수정하지 않는 집단 사고(group think; Janis, 1982, p.535)가 혐오를 지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직장, 학교 등 미시 체계에서 혐오는 무지와 몰이해를 빚자한 무시의 폭력으로 등장하였다. 폭력은 미세 공격(micro-aggression)에서부터, 범죄 행위까지 광범위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유사하게, Jung & Yoon(2020)은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 이성애자의 태도에 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의 비가시성에 주목하였고, 동성애 혐오가 확장편향을 통해 악화되는 점과, 동성애자를 향한 이성애자의 자기성찰 문제가 동성애자 혐오와 관련 있음을 논의하였다.

성소수자의 드러냄에 대한 상호인정의 실천을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할 때, 긍정적인 접촉경험(contact; Allport et al., 1979)이 편견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 소수자 편견 연구는 중요한 기반이다. 긍정적 접촉경험의

편견 완화 효과는 성소수자 편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09). 한 중단 연구에서 2년 추적 동안 이성애자의 동성애자 접촉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동성애자 접촉에 의해 이성애자의 동성애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보였다(Anderssen, 2002). 긍정적 접촉경험이 편견을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외집단에 대한 위협감 감소(Ryu, 2017), 성소수자 집단과 어울리는데 대한 낮은 불안(intergroup anxiety)과 긍정적 태도의 높은 강도(Mereish & Poteat, 2015), 그리고 개방성 성격 특질(Metin-Orta & Metin-Camgöz, 2020)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orthen과 동료들의 모형에서는 LGT에 대한 실제 접촉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원하지(desired social contact) 않는 정도, 즉,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편견을 보다 설명하였고(Worthen et al., 2019), 이들은 정치적 보수주의, 권위주의, 반페미니즘, 그리고 반평등주의와 같은 보수적 신념 체계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욕구와 관련 있다고 논의하였다(Worthen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갯대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 ‘신념을 내세워 가치를 폄훼’, ‘진정으로 알려하지 않음’, ‘규정된 정체성에 따르지 않으면 안됨’과 같은 하위 주제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신념 체계는 거리두기를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편견과 혐오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국내보다 진전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성소수자 간에는 유사하다는 분리주의 신념(discreteness), 즉, 가장 강한 편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동성애자 접촉경험이 편견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는데(Lytle et al., 2017),

국내 상황에서도 긍정적 접촉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혐오는 정치 세력화 되면서, 종교를 매개로 하여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더욱 무분별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는 양상이고, 정치인의 다툼은 혐오를 방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등 제도적 차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던 퀴어퍼레이드 폭력 사태와 정치인의 혐오 방관에서 드러났듯이, 종교는 선행 연구에서도 성적 편견(sexual prejudice)과 높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Herek & McLemore, 2013), 한국사회는 이러한 편견이 제도적 차별로 악화되는 사태를 마주하고 있었다(e.g., Park, 2018). 이성애자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혐오가 제도적 차별로 악화되는 문제는 동성애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감수할’ 문제이며 인식 전환은 이성애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성애자 태도가 발견된 바 있다(Jung & Yoon, 2020). 본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성소수자의 존재 인정은 단지 성소수자의 권리 획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모두의 존엄을 회복하는 가치의 확장이므로, 성소수자 무시 문제는 인간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향상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혐오폭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더불어 논할 수 있다. 차이와 개성의 몰인정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혐오폭력으로 돌아왔다. 규정된 타자를 가장 닮은 사람과 덜 닮은 사람 사이에 위계가 발생하고, 전자가 후자에게 무시를 행사했다. 성별 이분법 규정을 추구하는 성소수자들은 성별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공격했다. Herak & McLemore

(2013)은 성적 편견(sexual prejudice)을 논의하면서, 이는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성소수자를 폄훼하는 구성원의 공유 지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지식은 집단 간 권력과 지위의 차이로부터 강화 받는다고 하였다. 성적 편견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여러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사회의 전형적인 성별 이분법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 일부 집단은 자신들보다 인정받지 못하여 권력과 지위가 낮은 성소수자 외집단을 향해 성적 편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 이는 권력과 지위를 바탕으로 무시를 행사한 점에서 이성애자가 표출하는 성적 편견과 다를 바가 없고, 혐오는 권력 차이를 바탕으로 무시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포커스 그룹에 가장 자주 등장한 혐오의 구조는 사랑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는 최소단위라고 규정되는(Honneth, 2001/2017) 가족 안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가족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하였으나, 가족은 '정상적인 상'이라는 사회 규범에 따라 존엄을 가치평가 하였고, 평가 절하된 존재로서 성소수자는 '아니라고' 부정되거나 '없는' 취급을 받았다. 선행 보고에서도 가족에게 커밍아웃 후 경험하는 가족의 거부적, 회피적 태도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였고(Kim, 2017), 혐오적 괴롭힘과 언어폭력, 더하여 가족의 낮은 지지는 결과적으로 자살 시도와 연관을 보였다(Hidaka & Operario, 2006; Mustanski & Liu, 2013).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가족 안에서의 혐오폭력 양상을 보았을 때, 혐오폭력은 이데올로기와 관념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정체화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말살하는 형식의 행위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 혐오폭력이 성소수자 개인에게 어떤 억압을 가하는가를 답해보았을 때, 첫째, 혐오폭력은 가족 및 미시 체계, 국가와 사회, 문화적 규범 안에서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신체 학대, 그리고 부정과 배격이라는 정서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심리적 죽음(Honneth, 1992/2011, p.253)'을 야기, 즉, 자기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다. 참여자들은 은폐됨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혼란을 겪었다.

'심리적 죽음'이란 성소수자가 사회의 성적 낙인을 내재화하여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향하게 하는 '자기-낙인(self-stigma, Herek & McLemore, 2013)'의 경험과 같다. 나아가 Hatzenbuehler(2009)는 사회적 낙인이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심리학적 매개 모형을 설명하면서, 차별과 폭력의 소수자 스트레스원은 무망감, 부정적 자기도식과 같은 인지 과정, 반추 및 대처 동기와 같은 대처/정서조절 과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 규범 같은 사회/대인관계 과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반 심리학적 과정 변인의 매개로 정신 건강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Feinstein(2019)는 유사하게 직간접적 편견과 차별에의 노출이 원인이 되어 거부민감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거부에 대한 예상을 넘어 생생한 거부위협감으로 체험되며, 정신 건강을 매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은 공통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에 사회적 낙인이 선행한다고 강조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혐오폭력 경험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존엄을 잃는' 인지 과정, '가로막힘'과 '은폐'의 정서조절 과정, '세상에서의 소외'와 같은 사회/대인관계 과정, 그리고 '말살당함의 감각'으로

체험된 생생한 거부위협감을 발견한 바, 이것이 곧 ‘심리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혐오폭력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소수자의 위치를 무시하며 ‘부족한’ 시민으로 취급했다. 성소수자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정치인은 이들을 무시하여 사회 제도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박탈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죽음(Honneth, 1992/2011, p.254)’을 야기하여, 성소수자의 자기 존중을 상실시켰다. 혐오와 무시는 권리 박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인정은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신체 건강에도 관여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는 인종, 사회경제 지위, 거주 지역 특징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공기 오염으로 인한 암과 호흡계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et al., 2017). 영국의 여성 성소수자는 이성애 중심 전제와 의료인의 편견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 및 사용에 장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건강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Meads et al., 2019).

마지막으로, 혐오폭력은 성소수자가 성별 이분법이나 이성애 이데올로기라는 규정에 비취 열등한 삶의 방식을 지닌 것으로 ‘모욕(Honneth, 1992/2011, p.256)’하여 성소수자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였다. Mead가 말했듯 정체성은 관계 안에서 실현된다 할 때(Honneth, 1992/2011, p.173), 특수한 인격체로서 성소수자를 무시하는 혐오폭력은 당사자에게 생생한 존재 말살의 감각으로 체험되며, 이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 말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고유한 존재도 상호인정을 통해 드러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사회공동체의 도덕적 발전을 향한 억

압이기도 하다.

요컨대, 성소수자 혐오폭력이란 사회 규범과 관습적 신념이 권력의 형태를 띠고 억압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하고, 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해를 입히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시키며,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혐오폭력은 오늘날 사회 구성에서 필히 요청되는 다양성 인정이라는 공동체 가치 지향을 방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발전에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어서 세 번째 연구 질문으로, 혐오라는 무시가 성소수자 존엄을 말살시키는 행위라 했을 때, 존엄을 확장하는 대안은 자기계발을 통한 개별 존재 입증의 노력에서부터, 성소수자 존재의 드러냄, 정서적 연결, 무시가 구조적 문제라는 인지적 통찰,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 그리고 궁극적 대안으로, 차이 인정이라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 연대하는 사회적 실천에 있었다. 혐오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내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성소수자 정체성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통해 성소수자의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Lee & Yon, 2020). 성소수자 개인의 안녕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 참여자들이 ‘네가 거기에 있으니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했듯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을 무시에 의한 존엄 훼손과 인간 억압의 문제로 바라보고, 말살 당하지 않고자 하는 동기에 힘입어 자신을 둘러싼 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 즉, 정체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의 가치지평을 넓히는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이들의 드러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의 체험을 이와 같은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인간 다양성 존중의 보편적 사회 가치를 실현함에서 상호인정을 수행하는 심리학자의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성소수자가 혐오 환경에서 직면하는 존엄 훼손과 소외를 경계하는 심리학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다. 인정은 자기 신뢰, 자기 존중, 자기 존엄을 회복시키며(Honneth, 1992/2011), 따라서 심리학적 관심사인 개인 삶의 질, 즉, 성소수자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인정 경험을 살펴본다면, 국내 LGB 집단에서 정체성 수용에 대한 우려가 낮고, 정체성 긍정이 높은 상태는 낮은 정신장애 증상과 더불어 정서, 심리, 사회적 웰빙 수준이 높은 정신건강 변형 상태와 관련 있었다(Baek et al., 2019).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에서의 인정 경험이 중요하게 등장하였는데, 선행 연구에서 가족의 수용은 안정감과 건강한 자기감 발달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Kate-Wise et al., 2016). 따라서 인정 경험의 심리학적 가치는 크다. 심리학자는 성소수자 가족을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거나, 심리학적 서비스를 통해 커밍아웃을 준비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안전한 커밍아웃을 도와줄 수 있다.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에서 심리학자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 성향, 권위주의와 같은 상담자의 성향이 동성애 내담자 혐오와 관련 있었고(Seo et al., 200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임상 판단 및 내담자를 향한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Woo & Yoo, 2017). 반면, 상담자가 편견 없이 대하여 안전한 상담 환경을 제공했을 경우 동성애 내담자의 자기성찰이 확장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긍정적 성과가 일어났다(Kong et al., 2018). 심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내담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따라서 성소수자 인정을 위해 노력할 전문가로서 윤리가 있다.

성소수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인정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무시는 '세상에서의 소외'를 야기했다. 선행 실증 연구에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소수 인종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낙인을 가하는 사회 장면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이 드러났다(Choi et al., 2011). 이렇듯 소외는 HIV 감염과 같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UNAIDS (2016)는 HIV예방 운동의 목표에 MSM 비(非)범죄화와 낙인 제거를 두고 있다. 이에 심리학자는 건강 분야에서 일할 때 성소수자를 향한 무시가 야기하는 장벽을 인지하고, 성소수자의 인정을 촉진하는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심리학자가 행하는 또 다른 주요 업무인 연구 장면에서, 심리학자는 성소수자 무시를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연구 진행에서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표본에 성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료 수집에서 성소수자의 응답을 고려하기, 연구 원고 작성에서 성소수자를 인지하는 용어를 사용하기와 같은 전략으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참여한 연구 결과를 이들의 결함으로 폄하하거나 병리화하지 않고 조절 변인과 같은 맥락을 밝히는 등 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해

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소수자가 속한 미시 및 거시 체계에서 무시와 부정의를 고려하기 위해, 생태학적 분석 및 다층 모형(Raudenbush & Bryk, 2002)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연구 방법론에서 다양성, 그리고 무시라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심리학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심리학회(LGB, 그리고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와의 심리학적 실천 지침을 제안한 바, 심리학자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긍정하고(affirming), 이를 향한 편견, 차별, 폭력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와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관련 서비스에 전문성을 키우며, 연구에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연구의 오용과 오해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APA, 2012, 2015). 이와 같은 논의를 출판하는 움직임이 국내 심리학회에도 요구되는 바이다. 개인 도덕기준이나 사적 신념 체계가 혐오폭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윤리는 다양한 인간 존엄성 실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확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성소수자 안에서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지만, 성소수자 모두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간성(intersex) 정체성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참여자가 대부분으로, 연령에 따른 혐오와 무시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는 특히 중·장·노년기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세대 경험에 따른 인정투쟁의 차이를 비롯, 민족 차이, 사회경제적 차이, 장애인·비(非)장애인, 이주민·비(非)이주민 등 다양한 삶의 맥락을

포괄하는 성소수자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포커스 그룹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혐오폭력 행위자가 혐오를 선동하는 원인이나 동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편견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혐오폭력의 양상을 논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포커스 그룹의 특징상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그룹 의제를 통제하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심층을 탐색하기는 어렵다(Kloos et al., 2012, p.113). 또한 보조진행자,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와 철학 전공자에게서 비평을 얻었으나, 연구자의 해석이 인터뷰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배우는 과정(Morrow, 2005)으로서 참여자 검토를 받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추후 연구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다른 패러다임과 신빙성 구축 절차를 통해 개인 혹은 집단 인터뷰를 질적 분석하여 믿음직성을 보완할 수 있고, 양적 연구를 통해 일반화 측면을 탐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Honneth(1992/2011)의 인정투쟁 이론을 분석 틀로 두었다는 점에서 결과적 및 전복적 타당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심리내적 경험에 주목하는 주제 및 범주 구성과 같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발견할 수 있는 범주를 간과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혐오폭력 경험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의 사회 규범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로 가치가 있으며, 질적 분석에 비판이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 학계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소수자의 존엄 회복과 사회공동체의 발전에서 심리학자의 역량을 논의함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https://doi.org/10.2307/379134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https://doi.org/10.1037/a002465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70*(9), 832-864.
<https://doi.org/10.1037/a0039906>
- Anderssen, N. (2002). Does contact with lesbians and gays lead to friendlier attitudes? A two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2), 124-136.
<https://doi.org/10.1002/casp.665>
- Baek, I., Moon, K., & Ko, Y. (2019). A validation study of mental health two-factor model: In a sexual minority populat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4), 403-422.
- Bell, J. G., & Perry. B. (2015). Outside Looking In: The Community Impacts of Anti-Lesbian, Gay, and Bisexual Hate Crime. *Journal of Homosexuality, 62*(1), 98-120.
<https://doi.org/10.1080/00918369.2014.957133>
- Brax, D., & Munthe, C. (2015). The philosophical aspects of hate crime and hate crime legislation: introducing the special section on the philosophy of hate crim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0), 1687-1695.
<https://doi.org/10.1177/0886260514555374>
- Burns, N. (1989). Standards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Science Quarterly, 2*(1), 44-52.
<https://doi.org/10.1177/089431848900200112>
- Chioncel, N. E., Van Der Veen, R.G.W., Wildemeersch, D., & P. Jarvis. (2003).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cus groups as a research method in adul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2*(5), 495-517.
<https://doi.org/10.1080/0260137032000102850>
- Choi, K., Han, C., Paul, J., & Ayala, G. (2011). Strategies for managing racism and homophobia among U.S. ethnic and racial minority men who have sex with men.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23*(2), 145-158.
- Collins, T. W., Grineski, S. E., & Morales, D. X. (2017). Environmental injustice and sexual minority health disparities: A national study of inequitable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among same-sex partn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1*, 38-47.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7.08.040>
- DiFulvio, G. T. (2011). Sexual minority youth, social connection and resilience: from personal struggle to collective ident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2*(10), 1611-1617.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1.02.045>
- Duncan, D. T., & Hatzenbuehler, M. L. (2014).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hate crimes and suicidality among a population-based sample of sexual-minority adolescents in Bost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2), 272-278.
<https://doi.org/10.2105/AJPH.2013.301424>

- Feinstein, B. A. (2019).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mental heal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https://doi.org/10.1007/s10508-019-1428-3>
- Ghafoori, B., Caspi, Y., Salgado, C., Allwood, M., Kreither, J., Tejada, J. L., Hunt, T., Waelde, L. C., Slobodin, O., Failey, M., Gilberg, P., Larrondo, P., Ramos, N., von Haumeder, A., & Nadal, K. (2019). *Global Perspectives on the Trauma of Hate-Based Violence: An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Briefing Paper*. ISTSS.
www.istss.org/hate-based-violence
- Gillum, T. L., & DiFulvio, G. (2012). "There's so much at stake": sexual minority youth discuss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8*(7), 725-745.
<https://doi.org/10.1177/1077801212455164>
- Goldblum, P., Testa, R. J., Hendricks, M. L., Bradford, J., & Bongar, B.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based victimiz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transgender peopl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3*, 468-475.
- Hatzenbuehler, M. L. (2009). How does sexual minority stigma "get under the skin"? A psychological mediation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5*(5), 707-730.
<https://doi.org/10.1037/a0016441>
- Herek, G. M., & McLemore, K. A. (2013). Sexual Prejudi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309-333.
[doi:10.1146/annurev-psych-113011-143826](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13011-143826)
- Herek, G. M., Gillis, J. R., & Cogan, J. C. (1999). Psychological sequelae of hate-crime victimiz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945-951.
- Hidaka, Y., & Operario, D. (2006). Attempted suicide, psychological health and exposure to harassment among Japanese homosexual, bisexual or other men questioning their sexual orientation recruited via the interne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0*(11), 962-967.
<https://doi.org/10.1136/jech.2005.045336>
- Hong, S. (2018). *When words hurt*. Across.
- Honneth, A. (2011). *Kampf um Anerkennung* (S. Moon and H. J. Lee, Trans.). April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Honneth, A. (2017). *Leiden an Unbestimmtheit: Eine Reaktualisierung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H. N. Lee, Trans.). Greenbee.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Janis, I. L. (1982). *Groupthink: Psychological Studies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Jung, A., Yoon, E. (2020). Exploring South Korean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s same-sex relationships, lesbians, and gays: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2), 583-608.
<https://doi.org/10.23844/kjcp.2020.05.32.2.583>
- Kambrelis, G., & Dimitriadis, G. (2005). Focus groups: Strategic articulations of pedagogy, politics, and inquiry. In N. K. Denzin & Y. S. Lincol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Sage. (pp. 887-907)
- Kang, B., & Ha, K. (2005). A study on

- homosexual adolescents' sexual identity and suicidal risk.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267-289.
- Kang, B., & Ha, K. (2012). A qualitative study on sexual minority youths' formation processes of sexu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99-128.
- Katz-Wise, S. L., Rosario, M., & Tsappis, M. (2016).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and Family Acceptanc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63(6), 1011-1025.
<https://doi.org/10.1016/j.pcl.2016.07.005>
- Kim, H., & Kim, H. (2018). Systema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minority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7(2), 185-220.
<https://doi.org/10.22257/kjp.2018.06.37.2.185>
- Kim, J. (2017). Mental health in LGBTs resulting from family rejection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3(4), 605-634.
<https://doi.org/10.20406/kjcs.2017.11.23.4.605>
- Kincheloe, J. L. & McLaren, P. (2000). Rethinking critical theory and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Sage. (pp. 279-313)
- Kira, I. A. (2001). Taxonomy of trauma and trauma assessment. *Traumatology*, 7(2), 73-86.
<https://doi.org/10.1177/153476560100700202>
- Kloos, B., Hill, J., Thomas, E., Wandersman, A., Elias, M. J., & Dalton, J. H. (2012).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3rd.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 Kong, C., Jung, Y., & Park, S.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exual minority (LGB) clients' experience in counseling: Centered on sexual identity.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44(4), 197-232.
<http://dx.doi.org/10.30940/JQI.2018.4.4.197>
- Korstjens, I. & Moser, A. (2018). Series: Practical guidance to qualitative research. Part 4: Trustworthiness and publishing. *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4(1), 120-124.
doi:10.1080/13814788.2017.1375092
- Kosciw, J. G., Greytak, E. A., Bartkiewicz, M. J., Boesen, M. J., & Palmer, N. A. (2012). *The 2011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GLSEN).
- Lee, H. J. (2015). Reconstruction of the struggle for right to the city of sexual minority through the concept of post-traditional solidarity: Focused on the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and Butlers critique. *Journal of 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78, 353-378.
- Levin, B. (2009). The long arc of justice: Race,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hate crime law. In B. Perry & B. Levine (Eds). *Hate Crimes. The Victims of Hate Crime*. (pp.1-22). Praeger Perspective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ogie, C. H., Newman, P. A., Chakrapani, V., & Shunmugam, M. (2012). Adapting the minority stress model: associations between gender non-conformity stigma, HIV-related

- stigma and depress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South Indi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4(8), 1261-1268.
doi:10.1016/j.socscimed.2012.01.008
- Lytle, A., Dyar, C., Levy, S. R., & London, B. (2017). Essentialist beliefs: Understanding contact with and attitudes towards lesbian and gay individual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1), 64-88.
https://doi.org/10.1111/bjso.12154
- Madriz, E. (2000). Focus groups in feminist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Sage. (pp. 835-850)
- Meads, C., Hunt, R., Martin, A., & Varney, J. (2019). A Systematic Review of Sexual Minority Women's Experiences of Health Care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7). https://doi.org/10.3390/ijerph16173032
- Mereish, E., & Poteat, V. P. (2015). Effects of heterosexuals' direct and extended friendships with sexual minorities on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intergroup anxiety and attitude strength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5(3), 147-157.
https://doi.org/10.1111/jasp.12284
- Metin-Orta, I., & Metin-Camgöz, S. (2020). Attachment style, openness to experience, and social contact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67(4), 528-553.
https://doi.org/10.1080/00918369.2018.1547562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 674-697.
- Morgan, D. L. (198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 Morrow, S. L. (2005). Quality and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50-260.
https://doi.org/10.1037/0022-0167.52.2.250
- Mustanski, B., Andrews, R., Herrick, A., Stall, R., & Schnarrs, P. W. (2014). A syndemic of psychosocial health disparities and associations with risk for attempting suicide among young sexual minority 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2), 287-294.
https://doi.org/10.2105/AJPH.2013.301744
- Mustanski, B., & Liu, R. T.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redictors of suicide attempts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3), 437-448.
https://doi.org/10.1007/s10508-012-0013-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7). *Factual Survey on Hate Speech and Regulatory Measur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Pachankis, J. E., Hatzenbuehler, M. L., & Starks, T. J. (2014). The influence of structural stigma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young sexual minority men's daily tobacco and alcohol us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03, 67-75.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3.10.005
- Park, G. (2018). Reinterpretation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ies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lense of recognition

- theory on non recognition and disregard. *Korean Studies Quarterly*, 41(3), 365-392.
- Park, J., Namkoong, M., & Chung, S.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homosexual clients: Focusing on lesbian cli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4), 997-1021.
<https://doi.org/10.23844/kjcp.2019.11.31.4.997>
- Raudenbusc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2nd Ed. Sage.
- Reeves, S., Albert, M., Kuper, A., & Hodges, B. D. (2008). Why use theories in qualitative research? *British Medical Journal*, 337, a949.
<https://doi.org/10.1136/bmj.a949>
- Ryu, S.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contact, threat, and prejudice toward the minority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1(4), 225-245.
<https://doi.org/10.21193/kjpspp.2017.31.4.011>
- Sandelowski, M. (1993). Rigor or rigor mortis.: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revisite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6(2), 1-8.
<https://doi.org/10.1097/00012272-199312000-00002>
- Seo, Y., Lee, J., Kang, J., & Cha, J. (2007). A study of the homophobic reactions of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213-237.
- Smith, S. J., Axelton, A. M., Saucier, D. A. (2009). The effects of contact on sexual prejudice: A meta-analysi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61(3-4), 178-191.
<https://doi.org/10.1007/s11199-009-9627-3>
- Spengler, E. S., Miller, D. J., & Spengler, P. M. (2016). Microaggressions: Clinical errors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Psychotherapy*, 53(3), 360 - 366. <https://doi.org/10.1037/pst0000073>
- Sung, J. & Lee, H. (2010).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and resilience of lesbian and gay activ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1), 173-204.
- UNAIDS (2016). *Global Aids Update*. Geneva: UNAIDS.
-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Geneva: United Nations.
-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8). *Report on follow-up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124/2). Geneva: United Nations.
- Woo, S., & Yoo, S. (2017). Counselor's reaction and clinical judgment according to counselor's negative attitude and competence in lesbian and gay counseling. *Korean Journal f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2), 311-334.
<https://doi.org/10.23844/kjcp.2017.05.29.2.311>
- Worthen, M., Lingardi, V., & Caristo, C. (2017). The roles of politics, feminism, and religion in attitudes toward LGBT individuals: A cross-cultural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taly, and Spain.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4(3), 241-258.
<https://doi.org/10.1007/s13178-016-0244-y>
- Worthen, M., Tanzilli, A., Caristo, C., & Lingardi, V. (2019). Social contact, social distancing, and attitudes toward LGT individuals: A cross-cultural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taly, and Spain. *Journal of*

Homosexuality, 6(13), 1882-1908.

<https://doi.org/10.1080/00918369.2018.1519302>

Yoon-Lee, S., Yon, K. (2020).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and positive identity on the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minority stress cop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2), 639-666.

<https://doi.org/10.23844/kjcp.2020.05.32.2.639>

1차원고접수 : 2020. 04. 01.

2차원고접수 : 2020. 07. 13.

3차원고접수 : 2020. 08. 15.

최종게재결정 : 2020. 08. 19.

**A qualitative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exual minorities who experienced hate-based violence:
Based on Axel Honneth's Struggle for Recognition**

Hyunjung Cho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analyzed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with 17 participants with various gender identities and sexual orientations based 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ory of the social philosopher Axel Honneth. By this the aim was to seek the aspects of hate violence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the result of this oppression, and to explore alternative solutions overcoming hate. Analysis revealed 59 sub-themes, 15 themes, and three categories. Categories were, “genocide of existence”, “drifting displacement: alienation from dignity”, and “struggle for recognition: expansion of dignity realization through solidarity”. Honneth’s theory appeared in that sexual minorities experienced psycho-social death of existence and damage in dignity from hate violence, however, became motivated fueled by barriers, covering, and alienation, to reveal themselves in mutual recognition of solidarity for realizing diversity which in result may lead to the moral development of the society. By this hate-base violence was redefined, and further, praxis for mutual recognition and competency as a psychologist to recognize diversity including sexual minorities as to contribute to human dignity realiz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sexual minority, hate based violence, struggle for recognition, focus group, qualitative analysis